

## 코로나19 지역확산 '초긴장'

도, 진주시 이통장 제주연수후 확진 관련 브리핑  
11월 들어서만 12명째 확진... 도민 불안감 고조  
"지역사회 감염 가장 우려... 방역체계 강화 심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이달 들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물론 제주사회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최근 제주연수에 나섰던 경남 진주시 이통장회장단 일행 등이 24~25일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른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 관련기사 4면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추석연휴 등을 포함해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에서는 42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일 60번째 확진자(서울 거주자)를 시작으로 이날 71번째 확진자(부산 확진자 접촉자)까지 이달 들어서 3주만에 벌써 확진자 12명이 제주에서 나왔다.

여기에 최근 제주를 방문한 진주시 이·통장회장단 일행이 무더기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들 일행 23명(회장단 23명, 버스기사 1명,

공무원 1명)이 지난 16~18일 연수차 제주를 찾았고 이중 15명과 가족 4명 등 모두 19명이 24~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확진판정을 받은 A(진주 코로나 37번)씨는 지난 20~22일에도 다른 통장들과 제주를 재차 방문해 25일 14명이 추가로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역학조사 범위 내 정확한 제주 체류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도는 우선 이들이 다녀간 동선 3곳을 공개하고 관련 장소를 방문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선 공개 장소는 서귀포시 동사돈중점점(22일 오후 7시31분~8시8분)과 가파도 입도선 왕복편(18일 오후 2시~2시10분, 오후 4시20분~4시30분) 등이며 현재 소득은 모두

완료한 상태다.

도는 확진자 이동경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역학적 이유, 법령상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동선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사회 감염은 가장 우려하는 상황 중 하나이며, 확진자 다수가 제주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제주연수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신경을 더 쓰고 있다"며 "다만, 현재로서는 제주가 감염원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대입 수능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에 대비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도는 도민·체류 관광객 대상 방역관리 확대 및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대상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발동, 제주 입도객 대상 특별입도절차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공·휴관을 통한 입도객 가운데 유증상임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 조치를 발동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유채꽃과 한라산** 25일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핀 제주시 한경면 한 밭의 뒤편 저 멀리로 한라산이 웅장한 자태를 뽐내면서 한쪽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 제주4·3 희생자 재심 일괄 청구된다

법무부, 검사 직권 재심 가능 내용 담은 '수정법률안' 제시

법무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 부개정안에 검사의 직권 재심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법률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정법률안의 핵심은 제주4·3희생자들에 대한 특별 재심사유를 인정해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것이다. 재심 사건 관할 법원은 제주 지방법원으로 정했다.

지금은 제주4·3희생자 또는 유족들이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럴 필요 없이 검사가 통틀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제주4·3희생자와 유족 측의 법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금까지 재심 재판이 유족마다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재심 청구 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추미에 법무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한 후 3주일 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9일 제주를 방문한 추 장관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재심을 추진해달라는 유족들의 의견에

대해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4·3 피해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배·보상을 통해 위로가 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그 원칙 아래 유관기관과 해법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인과 유족 등 피해자는 모두 362명으로 이중 352명이 4·3 당시 군사재판을, 나머지 10명이 일 반재판을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인구 7개월째 순유입

통계청 인구이동 분석  
출생아 전년비 9% 줄어

제주인구 순유입세가 7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10월 이동자 수는 60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7%(1만 명) 증가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9.6%, 시도간 이동자는 30.4%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2.6%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0.2

%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인구 백명당 이동자 수)은 13.9%, 전년동월 대비 0.3%p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만985명), 세종(2844명), 강원(1111명), 제주(700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이 이뤄졌다. 반면 서울(-1만312명)을 비롯해 대구(-2351명)와 대전(-1494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이 9.6%로 가장 높고 제주 1.3%, 경기 1.0%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순이동률은 지난 3월 -0.6

% 기록한후 4월 0.2 %, 5월 0.3%, 6월 0.8%, 7월 0.9%, 8월 1.0%, 9월 0.7%로 7개월 연속 인구 순유입세가 지속됐다.

또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출생아 수는 2만3566명, 전년동월 대비 524명(-2.2%) 감소했다. 이중 제주 지역 출생아수는 335명으로 전년동월 361명에 비해 26명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도내 출생아수는 3106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 감소했다.

올들어 9월까지 제주지역 혼인건수는 2246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6.7%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3.0%)보다 2배 높은 수치이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소상공인·구직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기업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

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추석연휴(9월 28~10월 4일) '제주도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유형주점·콜라텍·단란주점·직접판매 흥보관)와 올해 하반기 창업한 업체다.

지원신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16

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시 요일별 5부제가 이뤄진다. 재난지원금은 새희망자금 중복 지급 여부확인 등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내 미취업 구직 청년 1300여명에게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6억5000만원을 투입해 각 5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

## 신품종 감귤류 미하야, 아수미, 아수키를 재배하시는 농가 여러분께 올리는 글

에스피프레시 주식회사는 제주 감귤류, 키위 및 기타 국산과일과 수입과일의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신품종 감귤에 관하여 드릴 말씀이 있어, 직접 찾아뵙어야 하지만 지면을 통해 먼저 말씀 올립니다.

**\* 지난과정**

- 1) 2020년 1월 제주시 농협, 중문 농협과 협조하여 아수미, 아수키를 일부 유통하였으나, 출원권자 분쟁을 염려한 대형 유통사의 납품 거부로 부득이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였습니다.
- 2) 대형유통사 납품 등 보다 안정적인 유통을 위해 수개월 협의를 거쳐 **2020년 10월 30일 출원권자인 일본 농연기구와 협의 후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3) 계약 주요 내용 : 현재 재배 농가 파악 후 **농가와 서브 라이선스 계약(재배계약)을 맺어 당사가 전락 매입 후 유통** 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각 농가가 소속되어 있는 농협을 통해 매입 유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에스피프레시는 다음과 같이 농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 1) 개별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해 **생산 농가 및 유통사의 출원 분쟁의 염려를 해소**하고, 통합 마케팅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을 선보일 기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 2) 현재 계약은 식재된 과수의 과실만을 생산·유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일본 출원권자와 협의하여 추가 증식 시 기존 계약 농가와 우선적으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바람과 목표는 일반 감귤류의 조수입이 줄어드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품종 감귤류를 점차 확대하여 농가 소득향상 및 감귤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소속 농협이나 당사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얻고 최선을 다해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스피프레시 주식회사 대표이사 올림  
연락처: 대표번호 1899-3947, 010-9651-8650, 010-3203-5795